

신앗시리아의 왕을 향한 예언 연구

윤동녕*

1. 들어가는 말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신(神)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 세계의 삶에 관여한다고 생각했다. 신들은 자신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징조(徵兆)를 보이거나 직접 인간에게 말을 건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신들은 자연현상이나 동물들의 내장을 통해서 징조를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꿈과 예언을 통해 그들의 뜻을 전하기도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신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의 한 중심에 왕이 위치하고 있었다. 왕은 사회체제의 중심점이었으며 “모든 나라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는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이다.¹⁾

예언자는 신과 왕 사이에서 서서, 한편으로는 신의 메시지를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왕에게 전달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였다.²⁾

* 대전신학대학교 강사, 구약학

1) Jean Bottéro, *Religion in Ancient Mesopotamia*, T. L. Fagan, tran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2001), 174.

2) 예언과 예언자의 개념은 Herbert B. Huffmon, “The Origins of Prophecy,” F. M. Cross, et al., eds., *Magnalia Dei. The Mighty Acts of Gods: Essays on the Bible and Archaeology in Memory of G. Ernest Wright* (Garden City: Doubleday, 1976), 172; Manfred Weippert, “Prophetie im Alten Orient,” Manfred Görg and Bernhard Lang, eds., *Neues Bibel-Lexikon* 3 (Zürich: Benziger, 1991-2001), 197; Martti Nissinen, “What is Prophecy? An Ancient Near Eastern Perspective,” J. Kaltner and L. Stulman, eds., *Inspired Speech: Prophecy in the Ancient Near East. Essays in Honour of Herbert B. Huffmon*, JSOTS 378 (New York: T & T Clark

그러나 중재의 역할은 예언자만 한 것이 아니다. 간접 신탁가(haruspex)나 천문 신탁가(astrologer)와 같은 직업적 전문 신탁가도 왕에게 신의 뜻을 중재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신탁을 왕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지칭할 때 왕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왕 앞에서 있는/앉아 있는 자”로 묘사하고,³⁾ 때로는 자신들을 왕의 책사(mālikum)로 소개하기도 했다.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들 전문 신탁가들에 비해 예언자들의 지위는 낮았다. 따라서 예언의 지위도 전문 신탁의 하위에 위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과 주제에 있어서는 전문 신탁이나 예언은 별 차이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들의 주목표는 왕의 복지와 제국의 평안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오랜 교육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전문 신탁과는 달리 예언은 구술 신탁으로서 전문 신탁의 대안으로서 가치가 인정되었다. 따라서 신앗시리아의 예언의 연구는 예언자와 왕의 관계, 예언자와 전문 신탁가와의 관계, 예언자와 사회의 관계와 같이 다양한 범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세 주제 중 예언자와 왕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신앗시리아 왕들을 향한 예언의 연구에 집중하려고 한다. 나머지 두 과제는 본 연구의 토대 위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2. 신앗시리아의 예언자들

2.1. 예언자들의 유형과 특징

International, 2004), 17-37 참조.

3) Ulla Jeyes, *Old Babylonian Extispicy: Omen Texts in the British Museum* (Istanbul: Nederlands Historisch-Archaeologisch Instituut, 1989), 23.

4) Ignace Gelb, ed., *Assyrian Dictionary* 2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56-), A/2, 162-164. 이하 CAD로 약함.

고대 근동에는 다양한 명칭을 가진 예언자들이 활동하였다. 주전 20세기경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위치했던 마리 왕국에서는 “아필루/아 필투”(āpilu/āpiltu, 대답하는 자)와⁵⁾ “무후/무후투”(muḥḥû/muḥḥûtu, 황홀경에 빠진 자)⁶⁾, “아시누”(assinnu, 일종의 제의 인도자)⁷⁾, 그 의미가 불분명한 “카마툼”(qammātum)⁸⁾, 그리고 “나부”(nabû)가 예언자로서 신의 메시지를 전하였다.⁹⁾ 특별히 “나부”는 마리 문서에 한 번만 등장하는데(ARM 26 216), 어원학적으로 구약의 예언자 “나비”(nābî)와 유사점이 있다.¹⁰⁾

또한 주전 8세기의 시리아 지역의 하맛(Hamath)과 루아쉬(Luash)의 왕이었던 자쿠르(Zakkur)가 세운 아람어 비문에는 구약의 선전자 호제에 비견되는 ḥzyn과 ‘ddn이 등장하며,¹¹⁾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데이르알라(Deir ‘Allā) 비문에도 민수기 22-24장에 등장하는 발람과 같은 이름을 가진 예언자가 ḥzh라는 예언자 호칭으로 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¹²⁾

5) CAD A/2, 162-164.

6) CAD M/1, 115-116.

7) CAD A/2, 341-342.

8) 비교. CAD Q, 2.

9) 마리 예언자에 대한 개론적 소개는 로버트 R. 윌슨,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과 사회』, 최종진 역 (서울: 예찬사, 1991), 126-140; 노세영, 박종수, 『고대 근동의 역사와 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35-150 참조.

10) “나비”에 대한 어원학적 연구는 D. E. Fleming, “The Etymological Origins of the Hebrew nābî’: The One Who Invokes God,” *CBQ* 55 (1993), 217-224와 John Huhnengard, “On the Etymology and Meaning of Hebrew nābî,” *EI* 26 (1999), 88-93; 김유기, “성서 히브리어 <나비>의 어원,” 『장신논단』 29 (2007), 41-74 참조.

11) Zakkur Stela 1. 12. 자쿠르 비문의 번역은 Martti Nissinen, *Prophets and Prophecy in the Ancient Near East*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3), 203-207의 시아오(C. L. Seow)의 번역을 참조하라. “ḥzyn”과 “‘ddn”에 대해서는 André Lemaire, “Prophètes et rois dans les inscriptions ouest-sémitiques (IXe-VIe siècle av. J. C.),” A. Lemaire, ed., *Prophètes et rois: Bible et Proche-Orient* (Paris: Cerf, 2001), 85-115를 참조하라.

12) Deir ‘Alla Plaster Texts, Combination I 1.1. 번역은 Martti Nissinen, *Prophets*

신앗시리아에도 여러 형태의 예언자들이 등장한다. 신앗시리아의 예언 문서들에는 마후/(여성형) 마후투(maḥḥû/maḥḥûtu), “황홀경에 빠진 자”,¹³⁾ 라기무/(여성형) 라긴투(raggimu/raggintu), “외치는 자”,¹⁴⁾ 셀루투(sêlûtu), “신전 봉사자”와 같은 다양한 예언자 칭호가 등장한다.¹⁵⁾ 라기무 예언자는 예언을 대중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했다. 라기무라는 단어는 “외치다” 혹은 “선포하다”를 의미하는 동사 라가무(ragāmu)의 분사형인데,¹⁶⁾ 흔히 “예언하다” 혹은 “신탁을 선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¹⁷⁾ 마후 예언자는 마리 문서에 등장하는 무후(muḥḥû) 예언자처럼 열광적 행동이 특징이었을 것이다.¹⁸⁾ 하지만 신앗시리아의 예언 문서들에는 마후 예언자의 행동양식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다. 대신 마후 예언자는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자주 등장한다.

에살핻돈(Esarhaddon)과 앓수르바니팔(Assurbanipal)의 비문에 마후 예언자는 “마후 예언자의 메시지들”(šipir maḥḥê)이라는 문구로 자주 언급된다. 에살핻돈의 왕위 등극에 관한 신탁들이 묘사된 한 비문에 따르면 “마후의 메시지들”이라는 문구는 다른 신탁 용어들과 병행해 등장한다.

and Prophecy in the Ancient Near East, 209-210의 시아오의 번역을 참조하라.

13) CAD M/1, 90-91.

14) CAD R, 66.

15) 신앗시리아의 예언 현상과 예언자들의 활동은 Herbert B. Huffmon, “Prophecy in the Ancient Near East,” 697-700과 그의 “Prophecy, Ancient Near Eastern Prophecy,” 477-482, 그리고 Weippert, “Prophetie im alten Orient,” 196-200을 참조하라.

16) CAD R, 62-66. 동사 ragāmu는 예언이 큰 목소리로 선포되었음을 암시한다. 이에 대해서는 Simo Parpola, *Assyrian Prophecies*, SAA 9 (Helsinki: Helsinki University Press, 1997), xlv를 참조하라.

17) 예언자 칭호 라기무/라긴투에 대한 문법적 분석 연구는 Manfred Weippert, “‘König fürchte dich nicht!': Assyrische Prophetie im 7. Jahrhundert v. Chr.,” *Or* 71 (2002), 32의 각주 130번을 참조하라.

18) 참조, CAD M/1, 115-116.

나의 제사장직 권좌의 기초를 먼 미래까지 굳건히 하겠다는 마후 예언자들의 메시지들(*šipir maḥḥê*)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나에게 전달되었다. 나의 왕권의 확립과 장기 집권에 대한 좋은 징조들(*idāt dumqi*)이 꿈들(*šutti*)과 구술 신탁들(*gerrê*)을 통해 계속해서 나타났다. 내가 이러한 좋은 징조들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이 확고해졌으며 나의 기분은 좋아졌다.¹⁹⁾

같은 상황을 언급한 후대의 비문에서도 마후 예언자들의 메시지들이 언급되고 있다.

하늘과 땅에서 좋은 징조들(*idāt dumqi*)이 나에게 나타났다. 마후 예언자들의 메시지들(*šipir maḥḥê*), 여신 이슈타르와 다른 신들로부터 온 메시지(*našparti ilāni u Ištār*)가 계속 나에게 주어졌으며 나의 마음을 격려하였다.²⁰⁾

앗수르바니팔의 비문에서는 마후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엘람왕 투먼(*Teumman*)의 전투를 앞두고 전해진다.

나는 마르둑 신(*Marduk*)과 앗수르 신(*Aššur*)의 명령을 따라 텔 투바(*Tell Tuba*)에서 그들을 격퇴했노라. 나의 주이신 위대한 신들은 좋은 징조들(*ittāti damqāti*), 꿈들(*šutti*), 구술 신탁들(*egerrê*), 그리고 마후 예언자들(*šipir maḥḥê*)의 메시지들로 나를 격려했노라.²¹⁾

이 비문들에는 에살हत돈과 앗수르바니팔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좋은 징조들이(*idāt dumqi*) 열거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는 마후 예언자들의 메시지(*šipir maḥḥê*)도 포함되어 있다. 마후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마치 간점 신탁(*extispicy*)이나 천문 신탁(*astrology*)과 같은 점술 신탁

19) Assur A ii 12-ii 26.

20) Nin. A ii 3-7.

21) Prism B v 93-95, C vi 125-127.

(divination)의 일부처럼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마후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점술 신탁과는 다르다.²²⁾ 우선 마후 예언자가 선포한 예언은 다른 점술 신탁과는 달리 “징조”(ittu)가 아닌 “메시지”(šipru)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²³⁾ 또한 마후 예언자의 예언은 “신들과 이슈타르 여신의 메시지들”(našparti ilāni u Ištār)처럼 신들로부터 직접 전해진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문을 기록한 서기관들은 예언을 점술 신탁의 일부로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신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러한 언급들은 예언이 점술 신탁과 구분되는 독특한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²⁴⁾

예언자들은 특정한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활동하였으며 때로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과정 중에 예언을 선포했다. 하지만 예언자들은 제사장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를 주도하지 않았고 신전에 상주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간접 신탁과 같이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 신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또한 천문 신탁과 같이 신의 뜻을 알기 위해 고도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일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신과의 구어적 의사소통(verbal communication)에 특화된(전문화된) 자들이었다.²⁵⁾

22) 고대 근동의 다양한 신탁 행위에 대해서는 노세영, 박중수, 『고대 근동의 역사와 종교』, 151-174와 박중수, 『이스라엘 종교와 제사장 신탁-제비뽑기의 신비』(서울: 한울, 1997), 61-89를 참조하라.

23) 징조(ittu)는 간접 신탁이나 천문 신탁과 같은 전문 신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신의 응답으로서 천문 현상이나 내장의 이상 징후와 같은 가시적 형태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메시지”(šipru)는 구어적 형태로 전달된다. CAD I/J, 304-310을 참조하라.

24) 참조하라, Martti Nissinen, *References to Prophecy in Neo-Assyrian Sources*, SSAS 7 (Helsinki: Neo-Assyrian Text Corpus Project, 1998), 33-34.

25) 참조하라, Herbert B. Huffmon, “A Company of Prophets: Mari, Assyria, Israel,” Martti Nissinen ed., *Prophecy in Its Ancient Near Eastern Context: Mesopotamian, Biblical, and Arabian Perspective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0), 52. 신앗시리아 예언의 구어적 특징은 예언 문서의 간기(刊記, colophon)에도 잘 나타나 있다. 예언은 대체로 편지의 형태로 보고되었고 편지의 끝 부분에 송신자의 이름이 “ša pi +성명” 혹은 “issu pi+성명”의 형태로 기록되었는데 직역하면 “누구의 입으로부터”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입”을 뜻하는 명사 pû는

2.2. 신앗시리아 예언자들의 사회적 지위

신앗시리아 예언들은 대부분 에살하돈(681-669년 B. C.)과 앓수르 바니팔(669-631년 B. C.) 시대에 등장한다. 마리 예언들처럼 신앗시리아 예언들은 중요 정치적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왕권의 적법성과 확립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몇몇 마리 예언자들과는 달리 신앗시리아의 예언자들은 왕과 직접 교류했다는 증거가 없다.²⁶⁾ 신앗시리아 제국은 마리 왕국과는 달리 영토도 넓고 또 행정 제도도 완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²⁷⁾ 그래서 고위층에 속했던 다른 신탁 전문가들조차도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는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다.²⁸⁾ 사실 왕에 대한 많은 예언의 메시지들은 궁궐에서 활동하고 있던 다양한 부류의 여인들에게 전해졌다.²⁹⁾ 이러한 예언들은 신탁 전문가들이나

예언의 구어적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 26) 마리 예언자와 왕 사이의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윤동녕, “소설 미디어로서의 예언의 역할-마리 문서의 예언 현상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41 (2011), 11-34를 참고하라.
- 27) 앓시리아 제국과 궁정의 행정 체제에 대해서는 Simo Parpola, “The Assyrian Cabinet,” M. Dietrich and O. Loretz, eds., *Vom Alten Orient zum Alten Testament: Festschrift für Wolfram Freiherrn von Soden zum 85. Geburtstag am 19. Juni 1993*, AOAT 240 (Neukirchen-Vluyn: Neukirchner Verlag, 1995), 379-401과 Raija Mattila, *The King's Magnates: A Study of the Highest Officials of the Neo-Assyrian Empire*, SAAS 11 (Helsinki: Helsinki University Press, 2000), 3-10을 참조하라.
- 28) 폰그라츠 라이스텐에 따르면, 서간이나 보고서를 왕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일종의 검열 제도가 존재했다고 한다. 궁궐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었던 서기관, 내시, 혹은 사무관과 같은 식자층에 의해 서간과 보고서들이 먼저 읽혔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Beate Pongratz-Leisten, *Herrschaftswissen in Mesopotamien: Formen der Kommunikation zwischen Gott und König in 2. und 1. Jahrtausend v. Chr.*, SAAS 10 (Helsinki: The Neo-Assyrian Text Corpus Project, 1999), 309-320을 참조하라.
- 29) 예를 들면 이살벨리다이니가 왕비에게 전한 메시지(SAA 9 1.7:1-11), 아하트아비샤가 여왕에게 전한 메시지(SAA 9 1.8:12-25), 나부후사니가 에살하돈 왕과 여왕에게 전한 메시지(SAA 9 2.1:1'-14'), 무명의 예언자가 여왕에게 전한 메시지(SAA 9 5)가 그런 경우이다. SAA는 Simo Parpola, *Assyrian Prophecies*, SAA 9 (Helsinki: Helsinki University Press, 1997)의 약어임을 밝힌다.

관리들에 의해 수집, 검토되어 왕에게 서간적 보고문 형태로 전달되었다.

예언자들의 사회적 지위는 천문 신탁가나 간점 신탁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간점이나 천문점과 같은 전문적이고(professional) 학문적인(academic) 신탁 수단들에 비해 예언은 직관적이었고(intuitive), 따라서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수여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³⁰⁾ 또한 예언 문서에는 라기무나 마후와 같은 공식 예언자의 칭호 없이 예언을 선포한 비전문 평신도 예언자도 다수 등장하는데, 이들은 꿈과 환상과 같이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는 계시의 수단에 의지했다. 아울러 예언자의 상당수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보장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³¹⁾

하지만 몇몇 서신들은 예언자들의 활동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SAA 10 109에서 궁중 천문 신탁가이자 정치가였던 벨우세집(Bel-ušēzib)은 에살하돈 왕이 라기무와 라기무투 예언자들을 소환해서 바빌론과 에사길의 회복에 관한 신탁을 요구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당신의 중 벨우세집은 당신의 개이며 당신을 경외하는 자이니이다. 제가 니느웨에서 들은 많은 말씀들을 전달할 때, 왜 왕, 나의 주께서는 예언자들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저를 부르시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바로 (. . .) 왕권에 대한 징조를 나의 주, 에살하돈 왕자님과 어머

30) 천문 신탁이나 간점 신탁의 경우 점술가들은 천문 현상과 동물의 내장을 관찰하여 신의 뜻을 찾아내지만, 예언은 신의 주도로 전달되는 구어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수령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없는 직관적 형태의 신탁이다. 전문 신탁과 예언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Martti Nissinen, *References to Prophecy in Neo-Assyrian Sources*, 4-9.

31) 신앗시리아 예언 문서 저자 13명 중 남성은 4명, 여성은 9명으로서 상대적으로 여성 예언자가 남성보다 많은 마디 예언 문서와 평행을 이룬다. 예언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간단한 개인 이력에 대해서는 Simo Parpola, *Assyrian Prophecies*, xlvi-lix를 참고하라.

님 그리고 다다에게 전한 자입니다. “에살핫돈은 바빌론을 회복할 것이며, 에사길을 재건할 것이며 나에게 [. . .]!”(7-11', 13'-15'줄)

벨우세집은 이 편지에서 바빌론과 에사길의 회복에 대한 신탁은 이미 자신이 왕뿐 아니라 왕의 어머니 그리고 다른 전문 신탁가인 다다(Dadā)에게 전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벨우세집은 왕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전한 “왕권의 징조”(ittu ša šarrūte)를 왕에게 되새기며, 신의 뜻을 구하는 데 전통적인 신탁 전문가들이 행한 신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SAA 10 111에서 벨우세집은 자신이 행한 조언의 권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언을 인용하고 있다. 이 편지에서 그는 에살핫돈과 전쟁하고 있는 마네아인들(Manneans)에 대한 문제를 왕에게 조언하고 있다.³²⁾ 그는 예언을 인용하면서, 왕이 마네아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신의 뜻이라고 확인한다.

신들의 왕이신 마르둑(Marduk) 신께서는 나의 주, 왕과 화해하셨습니다. 나의 주, 왕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왕께서 보좌 위에 앉아계실 때, 적들을 섬멸하실 것이고 대적을 정복할 것이며 적국을 뒤엎을 것입니다. 벨(Bel) 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앗시리아의 왕 에살핫돈은 마르둑사픽제리(Marduk-šapik-zeri)처럼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가 보좌에 앉아 있는 한 나는 모든 나라를 그의 수중에 들게 하리라.” 왕은 주이십니다.³³⁾

벨우세집은 자신이 점술로 얻은 신탁의 결과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예언을 인용해 입증하려 했던 것 같다. 벨우세집은 예언의 관심이 국가의 이익과 부합되기 때문에 인용한 듯하다. 왕위의 안전은 모든

32) 마네아인들은 북서 이란에 거주하던 민족으로서 마네아인과의 전쟁에 대한 신탁은 SAA 4 267-269에 기록되어 있다.

33) SAA 10 111 r. 19-26.

신탁의 주요 관심사였으며 왕의 안전은 신의 세계와 인간 세계의 조화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언자들이 왕궁에서 왕에게 직접 예언을 선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하지만 비록 예언을 선포하지는 않지만 예언자가 왕궁에서 활동했음을 암시하는 간접적인 자료들은 남아 있다. 예를 들어 마르이사르(Mār-Issār)가 쓴 편지(SAA 10 352)에 따르면, 한 라긴투 예언자가 “대리 왕 제의”(šar pūḫi, substitute king ritual)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³⁴⁾ 이 여 예언자는 왕의 대리역으로 지명된 담키(Damqī)에게 예언을 선포하였다. “당신은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요.”(25줄). 왕의 대역을 살해하는 제의를 마친 다음 예언자는 계속해서 왕의 대역에게 신탁을 선포한다. 대리 왕 제의에 예언자가 등장한다는 사실은 예언이 권력자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었음을 확인해 준다.³⁵⁾ 이 라긴투 예언자는 아마도 SAA 13 37: 7-9에서 왕의 옷을 바빌론에 가져갔던 여 예언자 물리수아부우쯔리(Mullissu-abu-uṣri)일 것이다. 파폴라(S. Parpola)는 이 옷들은 왕의 보좌와 더불어 대리 왕 제의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³⁶⁾ 예언자가 왕의 신뢰를 받지 않고서는 대리 왕 제의에 필요한 보좌와 의복을 운반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한 숙박 명단 목록(SAA 7 9 r. i 20-24)에는 예언자가 다른 왕궁 관리들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네르갈무킨아히(Nergal-mukin-ahi), 전차 소유자; 나부샤루우쯔르(Nabū-šarru-uṣur), 왕자의 근위부대장; 와자루(Wazaru), 왕비의 호위병;

34) “대리 왕 제의”(šar pūḫi)는 왕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을 때 시행했다. 왕을 대신할 희생자에게 죽음이 선포됨으로서 왕에게 임할 지도 모를 죽음의 위협이 대리 왕에게 전이된다고 생각했다. 대리 왕 제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Marc Van de Mieroop, *History of the Ancient Near East, ca. 3000-323 BCE* (Oxford: Blackwell, 2005), 232-252를 참고하라.

35) Martti Nissinen, *References to Prophecy in Neo-Assyrian Sources*, 76 참조.

36) 참조, Simo Parpola, *Letters from Assyrian and Babylonian Scholars*, SAA 10 (Helsinki: Helsinki University Press, 1993), xxiv.

쿠키(Quqi), 라기무 예언자, 총 4명. 사디칸족의 주택들.

이 목록에서 예언자 쿠키(Quqi)의 이름은 궁궐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고위 관료들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 아마도 쿠키는 궁정과 연관된 예언자이거나 적어도 왕을 위해 예언을 선포하던 예언자로서 궁궐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비록 궁궐에 예언자들이 상주하며 왕 앞에서 예언을 선포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쿠키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예언자가 궁궐의 관리로서 활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³⁷⁾

요약하면, 신앗시리아의 왕들은 신들의 뜻을 구할 때 주로 전문 신탁인들에게 의뢰했다. 하지만 예언이나 꿈과 같은 비전문 신탁을 통해 전해지는 신의 뜻을 외면하지 않았다. 비록 전문 신탁인들은 비전문 신탁의 권위를 높이 사지는 않았지만 국가의 안전, 왕권의 안정, 왕의 복지와 같은 제국의 이데올로기의 기저에 동조하는 한 예언들의 경우, 자신들이 검토한 후 왕에게 보고하였다.

3. 왕을 향한 예언

3.1. 왕을 향한 예언의 특징

만프레드 바이페르트(Manfred Weippert)는 신앗시리아 예언들의 주요 대상이 왕들이고, 그 내용도 왕에게 호의적인 구원 선포임을 착안해, 신앗시리아의 예언을 “왕의 예언”(Königsorakel) 혹은 “왕을 향한 예언”으로 규정하였다. 왕의 예언은 주로 왕에게 선포되는데, 왕권의 안정에

37) 참고, Matthijs de Jong, *Isaiah among the Ancient Near Eastern Prophets: A Comparative Study of the Earliest Stages of the Isaiah Tradition and the Neo-Assyrian Prophecies*, VTS 117 (Leiden: Brill, 2007), 301.

대한 신적 약속, 왕의 안전, 국내외의 대적들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왕조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예언이다.³⁸⁾ 따라서 왕의 예언에서 왕을 향한 비판은 아주 드물게 나타난다.

양식 비평학적 관점에서 볼 때 왕의 예언들은 몇 가지 공통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예언을 선포하는 신의 자기소개, 역사적 회고, 격려의 문구, 그리고 신적 보호와 동행에 대한 약속이 그것이다.³⁹⁾ 예언은 대개 신의 자기 계시 형식(divine self-introduction formula)인 “나는 누구(신의 이름)이다”(anāku DN)로 시작되는데, 주로 이슈타르(Ištar) 여신이 계시의 주체이다.⁴⁰⁾ 신의 자기계시 형식은 예언의 수령자인 왕으로 하여금 예언을 통해 주어질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⁴¹⁾ 한편, 역사적 회고는 과거에 신이 왕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회고하여 예언에서 주어질 미래에 대한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케 하는 기능을 한다. 역사적 회고는 왕이 적과의 전쟁 등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신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제공하는 근거를 제공한

38) Manfred Weippert, “‘Ich bin Jahwe’-‘Ich bin Ištar von Arbela: Deuterocesaja im Lichte der neuassyrischen Prophetie,” B. Huwylar, et al., eds., *Prophetie und Psalmen: Festschrift für Klaus Seybold zum 65. Geburtstag*, AOAT 280 (Münster: Ugarit-Verlag, 2001), 33을 참조하라.

39) Manfred Weippert, “Assyrische Prophetien der Zeit Asarhaddons und Assurbanipals,” F. M. Fales, ed., *Assyrian Royal Inscriptions: New Horizons in Literary, Ideology, and Historical Analysis* (Roma: Instituto Per L'Oriente, 1981), 91; Weippert, “Ich bin Jahwe,” 50.

40) 신앗시리아의 예언자들은 이슈타르 제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아마도 예언자들은 이슈타르를 섬기는 신도들로서 이슈타르 제의에 참석했다가 예언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파폴라는 이슈타르가 독립된 신이라기보다는 앗수르 신의 여성적 측면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파폴라의 일신교적 사상은 Simo Parpola, *Assyrian Prophecies*, xviii-xxvi 참조.

41) Manfred Weippert, “Königsprophetie und Königsideologie in Juda: Zur ‘Nathansweissagung’ 2 Sa 7, 4-17,” T. Podella and P. Riede, eds., *Spuren eines Weges: Frenndesgabe für Bernd Janowski zum fünfzigsten Geburtstag am 30. April 1993* (Wissenschaftlich-Theologisches Seminar: Universität Heidelberg, 1993), 297 참조.

다.⁴²⁾

왕을 향한 구원의 예언은 격려의 신탁(*sir takilti*)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왕의 예언”은 “두려워 마라”(*lā tapallaḥ*)라는 문구로 시작해 왕을 격려하기 때문이다. 이 문구는 “위로의 문구”(Beschwichtigungformel) 혹은 “격려의 문구”(Ermutigungsformel)라 할 수 있다.⁴³⁾ 왕들은 종종 정치적, 외교적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런 때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판단력이 무감각해지고 또 무력감에 빠질 수 있다. 이때 격려의 문구는 왕으로 하여금 권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게 하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⁴⁴⁾

“왕의 예언”은 다양한 상황에서 선포되는데, 예를 들면, 전쟁을 앞둔 왕을 격려하기 위해, 혹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왕을 격려하기 위해, 혹은 신과 왕과의 관계를 재확립하기 위해 선포된다. 또 왕이 반란과 같은 정정 불안으로 그 자리가 위협받을 때 “왕의 예언”을 통해 신적(神的) 보호를 약속한다. 앗시리아의 관리 나부레흐투우쭈르(*Nabû-reḥtu-ušur*)는 여러 서간을 통해 예살합돈에게 사시(*Sasi*)라는 자가 결행한 반란 모의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는 한편으로는 사시에게

42) Weippert, “Ich bin Jahwe,” 50과 그의 “‘Heliger Krieg’ in Israel und Assyrien: Kritische Anmerkungen zu Gerhard von Rads Konzept des ‘Heiligen Krieges im alten Israel,’” *ZAW* 84 (1972), 474를 참조하라.

43) Weippert, “Assyrische Prophetien,” 78-79 참조. 격려의 문구가 “왕의 예언”의 중요 구성요소이기기는 하지만 바이페르트가 주장하듯이, 이 요소의 유무에 따라 장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구는 왕과 신하 간의 서간에서도 사용되는데, 이때는 *lā-tapallaḥ* 대신에 보다 정중한 형태의 *šarru (lū) lā ipallaḥ* 문구가 사용된다. 이에 대해서는 Manfred Weippert, “Aspekte israelitischer Prophetieim Lichte verwandter Erscheinungen des Alten Orients,” G. Mauer and U. Magen, eds., *Ad bene et fideliter seminandum: Festgabe für Karlbeinz Deller zum 21. Februar 1987*, AOAT 220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88), 312와 Martti Nissinen, “Fear Not: A Study on an Ancient Near Eastern Phase,” Marvin A. Sweeney and Ehud Ben Zvi, eds. (Grand Rapids: Eerdmans, 2003), 135를 참조하라.

44) 참조, Martti Nissinen, “Fear Not: A Study on an Ancient Near Eastern Phase,” 132. 격려의 문구 이후 갑작스러운 분위기 전환이 동반되는데 고통의 호소에 대한 신의 확신과 약속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펼쳐진 호의적인 예언을 보고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에살핫돈 왕에게 유리한 여러 예언들을 인용하면서 사시에게 향한 “반역적인” 예언에 대항하고 있다(SAA 16 59).

벨아후우즈르(Bel-aḫū-uṣur)의 한 계집종이 하란의 외곽에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시반(Sivan) 월부터 황홀경에 빠져 그(사시)에 대해 호의적인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누스쿠 신의 말씀이라. 사시가 왕이 되리라. 나는 산헤립의 씨와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리라!”(2'-5'줄)
니칼 신(Nikkal)께서 왕의 부친의 선하심을 배신하고 당신이나 당신의 부친과 맺은 조약을 파기한 자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씨를 궁궐로부터 제해버리라! 사시의 동조자들은 죽으리라!” 들으십시오, 왕, 나의 주여! 나는 니칼 신의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제거하십시오. 왕과 왕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 하소서! 신들을 당신의 부모로 삼아 그들로 하여금 적들을 몰리치게 하소서. 당신의 생명에 해를 입히지 마시옵소서. 왕위를 당신의 손에 굳건히 하소서. 들으십시오, 왕, 나의 주여! 니칼 신의 말씀을 외면치 마소서!(4-14줄)

또한 SAA 9 9는 아수르바니팔과 사마쉬슈우킨(Šamaš-šum-ukin)과의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편지에서 아벨라의 이슈타르 신은 위험에 빠진 아수르바니팔을 격려하며 그의 대적의 전멸을 선포하고 있다. 왕의 예언은 왕의 대적으로부터 구원하는 신적 행동, 신의 보호, 그리고 회복에 대한 약속을 선포한다.⁴⁵⁾

왕의 예언들은 또한 에살핫돈이나 아수르바니팔의 왕위 계승 사건에 관련해서도 선포된다. 예를 들면 SAA 9 1.2 i 30'-36'에는 에살핫돈의

45)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전쟁이나 반란으로 야기된 사회 정치적 무질서가 신의 진노로부터 기원(起源)한다고 생각했다. 예언 문서에서 아벨라의 이슈타르는 신들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아벨라의 이슈타르이다. 나는 너를 아수르 신과 화해시키노라”(SAA 9 1.4 ii 30'-31'); “나는 너를 아시리아와 화해시키노라.”(SAA 9 2.3 ii 3').

왕위 계승 사건이 언급된다.

앗시리아의 왕이여, 두려워 말라! 내가 앗시리아의 왕을 적으로부터 구원하리라. 나는 너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며 너를 왕위 계승 궁전 (*bēt rēdūti*)⁴⁶에서 크게 삼으리라. 나는 능력 있는 안주인(Lady)이다. 나는 아벨라의 이슈타르이다.

이 예언을 통해 이슈타르 여신은 아직 왕자인 에살핫돈을 앗시리아의 왕으로 언급하면서, 그가 산헤립의 뒤를 이어 합법적인 계승자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그를 안전하게 지켜 성공적으로 왕위를 계승시킬 것을 확약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신앗시리아의 왕의 예언의 내용들은 대부분 왕에게 호의적이었다. 폰그라츠 라이스텐(Pongratz-Leisten)은 예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언로(言路)가 통제되어 호의적인 예언만 왕에게 전달되었으리라 추정한다.⁴⁷ 왕과 관계된 예언들을 직접 듣거나 보고받은 관료들은 예언 속에 드러난 신의 뜻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예언에 언급된 문제들에 대해서 왕이 어떻게 대처할지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마리 예언자들처럼, 신앗시리아의 예언자들도 예언이 왕에게 호의적이거나 국가 전체 이익에 이바지할 경우 참 예언이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예언들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⁴⁸

46) 앗시리아의 궁정에서 왕자가 후계자로 선택되면, 그는 왕위 계승 궁전(*bēt rēdūti*)에 들어가 왕위 계승을 준비할 뿐 아니라 왕국의 행정 업무에도 일부 참여했다.

Martti Nissinen, *Prophets and Prophecy in the Ancient Near East*, 104를 참조하라.

47) Beate Pongratz-Leisten, *Herrschaftswissen in Mesopotamien: Formen der Kommunikation zwischen Gott und König in 2. und 1. Jahrtausend v. Chr.*, 73-74.

48) 이에 대해서는 Martti Nissinen, “Falsche Prophetie in neuassyrischer und deuteronomistischer Darstellung,” T. Veijola, ed., *Das deuteronomium und seine Querbeziehungen* (Helsinki: Finnische Exegetische Gesellschaft, 1996), 176을 참조하라.

3.2. 통치 지식의 일부로서의 예언

폰그라츠 라이스텐(B. Pongratz-Leisten)은 신들과 왕 사이의 의사소통을 통치 지식(Herrschaftswissen)이라는 관점으로 연구하였다. 그에 따르면 통치 지식은 왕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실재적 지식(operational knowledge)으로서 국가를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 왕에게 요구되는 인격적, 지적 자질을 포함한다.⁴⁹⁾ 따라서 통치 지식은 행정 자원뿐 아니라 왕의 정체성(identity)을 정립하고 입증하는 지식의 기능을 담당한다.⁵⁰⁾

폰그라츠 라이스텐에 따르면, 신앗시리아의 전문 신탁가들은 통치 지식을 체계화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했다고 한다. 신의 뜻을 따르는 일은 공동체의 뜻을 따르는 일이기도 했다. 점술은 신들과 왕 사이의 의사소통의 통로 역할을 하였는데 왕권, 즉 통치 지식을 유지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다. 점술가들은 신들과 왕 사이의 의사소통의 중재자로서 점술을 통해 신으로부터 받은 비밀스러운 지혜(secret wisdom)를 전달했을 뿐 아니라 신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정치 영역에 통치 지식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신들과 왕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점술가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했다. 왜냐하면 숨겨진 지혜를 왕에게 전달하기 전에 자세히 조사하고 분석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점술가들은 당시의

49) Pongratz-Leisten, *Herrschaftswissen*, 286-288. 폰그라츠 라이스텐이 주장하는 “통치 지식”은 동양의 “제왕학(帝王學)”과 유사하다. 제왕학은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교양이나 학식을 의미하는데, 왕은 제왕학을 통해 정치, 군사, 경제에 관한 통치 지식을 습득할 뿐 아니라,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교육받는다. 제왕학은 안길환 편역, 『정관정요 제왕학』 (서울: 책만드는집, 2007); 김문식, 『정조의 제왕학』 (서울: 태학사, 2007) 참고.

50) Beate Pongratz-Leisten, *Herrschaftswissen in Mesopotamien: Formen der Kommunikation zwischen Gott und König in 2. und 1. Jahrtausend v. Chr.*, 288과 Martti Nissinen, “Das kritische Potential in der altorientalischen Prophetie,” M. Köckert and M. Nissinen, eds., *Propheten in Mari, Assyrien und Israe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3), 30을 참조하라.

학자들로서-숨겨진 신의 메시지를 해석할 책임이 있었다.⁵¹⁾

모든 점술 기술들은 신의 비밀스러운 지혜의 한 부분 혹은 여러 부분을 해석하는 일을 담당했다. 따라서 천문 점술(astrology)이나 간점 점술(extispicy) 같은 전문 기술뿐 아니라 꿈과 예언과 같은 비전문 기술도 통치 지식의 중요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었다.⁵²⁾ 호프너가 규정하고 있듯이 “예언은 최상의 신적 지식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통로”로서⁵³⁾ 점술처럼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세속 문제도 취급했다.

예언자는 사회의 일부분이었다. 예언자는 신들과 왕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통치 지식의 근간을 이루는 구성 요소로서 예언자들은 신들과 왕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서 국가의 안정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예언자들은 통치 지식을 구성하는 다른 신탁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통치 체제를 위해 봉사하였다. 이러한 역할 때문에, 예언자들은 왕에게 권고나 경고, 때로는 비판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통치 지식이라는 관점에서 예언은 왕을 향한 비판을 가능케 했다.⁵⁴⁾

51) David Brown, *Mesopotamian Planetary Astronomy-Astrology* (Gronigen: Styx, 2000), 47. 신들과 왕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신적 비밀의 기능과 점술사의 전문 지식(ummānūtu)에 관한 기록들에 대해서는 Alan Lenzi, *Secrecy and the Gods: Secret Knowledge in Ancient Mesopotamian and Biblical Israel*, SAAS 19 (Helsinki: The Neo-Assyrian Text Corpus Project, 2008), 67-122를 참조하라.

52) Martti Nissinen, “Das kritische Potential in der altorientalischen Prophetie,” 30 참조.

53) H. A. Hoffner, Jr., “Ancient Views of Prophecy and Fulfillment: Mesopotamia and Asia Minor,” *JETS* 30 (1987), 257.

54) Martti Nissinen, “Das kritische Potential in der altorientalischen Prophetie,” 30 참조. 통치 지식의 비평적 기능은 예언 뿐 아니라 전문 점술 신탁에도 적용된다. 고대 그리스에서의 점술의 잠재적 비평기능에 대해 모건(Catherine Morgan)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점술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권위에 대항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점술은 지도자들로 하여금 논란이 되고 있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을 적어도 완전히 자신의 뜻대로만 관찰시킬 수 없게끔 하는 저항 메카니즘의 역할을 하였다. 점술은 무질서를 제거하고 어떤 난제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일치된 의견을 이끌어 내게 한다.” Catherine

전문 신탁뿐 아니라 예언도 왕실 도서관에 보관되었다.⁵⁵⁾ 왕의 통치 기간 중 도서관에 수집된 정보들은 행정 기관이나 관료 체제와는 독립된 기구로서 이용되었으며 관료나 전문 신탁인과 같은 지식인들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었다.⁵⁶⁾ 때문에 새로운 왕들은 도서관에 보관된 자료들을 통해 통치 지식을 습득하였으며 다음 세대를 위해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고 또 보존하려고 노력했다. 전문 신탁가나 비전문 신탁가들에게 온 보고서와 서간들은 왕이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자료로 사용되었다.

4. 구약에서의 왕을 향한 예언

신앗시리아의 왕을 향한 예언은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 사무엘 하 7장에 등장하는 나단의 신탁과 유사점이 있다.⁵⁷⁾ 신앗시리아의 예언처

Morgan, *Athletes and Oracles: The Transformation of Olympia and Delphi in the Eighth Century B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153-154.

- 55) 니시넨은 예언이 왕의 비문을 작성하는 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예언은 다른 종교 전문가들의 자료에도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종교 전문가들도 왕에게 전달한 보고서에 간접적으로 예언을 인용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Martti Nissinen, “Spoken, Written, Quoted, and Invented: Orality and Writtenness in Ancient Near Eastern Prophecy,” E. B. Zvi and M. H. Floyd, eds., *Writings and Speech in Israelite and Ancient Near Eastern Prophecy*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0), 268-269.
- 56) Karel van der Toorn, “Mesopotamian Prophecy between Immanence and Transcendence: A Comparison of Old Babylonian and Neo-Assyrian Prophecy,” Martti Nissinen, *Prophecy in Its Ancient Near Eastern Context: Mesopotamian, Biblical, and Arabian Perspectives*, SBLSS 13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0), 73-75.
- 57) 바이페르트에 따르면, 나단의 신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전 건축의 모티브(4b-8a, 13), 왕의 예언 모티브(8b-9, 12, 14a, 15-16), 그리고 기타 모티브(10-11, 14b). 바이페르트는 왕의 예언 모티브가 가장 오래된 자료로 후대에 건축 및 기타 모티브가 첨가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Manfred Weippert, “Königsprophezie und Königsideologie in Juda: Zur ‘Nathansweissagung’ 2 Sa

럼 나단 신탁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8절). 신명(神名)의 소개 이후 나단은 다윗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주셨는지를 회고한다(8-9절, 15절). 하지만 나단의 신탁에는 신앗시리아의 예언에 등장하는 격려 문구인 “lā tapallāh”와 평행하는 문구가 등장하지 않는다.⁵⁸⁾ 대신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9절)라는 문구를 통해 하나님의 현존과 도우심을 확신시키고 있다. 다윗에 대한 약속은 다양한데 크게 성전의 건축(10, 13a절)과 다윗 왕조(12, 13b, 14, 15, 16절)의 약속으로 요약할 수 있다.⁵⁹⁾ 이처럼 나단의 신탁은 신앗시리아의 왕을 향한 예언처럼 왕의 복지와 왕조의 지속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⁶⁰⁾

아비오즈(M. Avioz)는 나단의 신탁이 열왕기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열왕기의 저자들은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기 위해 나단의 신탁을 사용했다는 것이

7, 4-17,” 293 참조.

- 58) 신앗시리아 예언의 격려 문구인 *lā tapallāh*는 히브리 성경의 ‘*al-tirā*’와 평행한다. 통상적으로 *al-tirā*’는 하나님의 도움, 보호, 그리고 지원에 대한 확신과 밀접히 연결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Hyacinthe M. Dion, “The Patriarchal Traditions and the Literary Form of the Oracle of Salvation,” *CBQ* 29 (1967), 198과 Martti Nissinen, “Fear Not: A Study on an Ancient Near Eastern Phase,” 160 참조.
- 59) 이쉬다(T. Ishida)는 성전 건축의 주제는 왕조 주제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성전 건축 주제는 다윗 왕조의 합법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용되었다고 한다. Tomoo Ishida, *The Royal Dynasties in Ancient Israel: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Royal-Dynastic Ideology*, BZAW 142 (Berlin: Walter de Gruyter, 1997), 97. 말라마트(Abraham Malamat)는 마리 예언 문서 A1121+A2731과 나단의 신탁을 비교하며 둘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데, 그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성전 건축과 왕조의 지속에 대한 약속은 두 예언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 주제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Abraham Malamat, “A Mari Prophecy and Nathan’s Dynastic Oracle,” J. A. Emerton, ed., *Prophecy: Essays Presented to Georg Fohrer on His Sixty-Fifth Birthday 6 September 1980*, BZAW 150 (Berlin: Walter de Gruyter, 1980), 69-82를 참조하라.
- 60) 신앗시리아의 예언과 나단의 예언의 관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로회신학대학 성서학연구원 심포지움(2011년 10월)의 자료집 중 본인의 “신앗시리아 제왕 신탁의 관점에서 본 나단의 예언(삼하 7:4-17)”을 참조하라.

다.⁶¹⁾ 우선 나단의 신탁은 솔로몬 중심의 왕조 이념을 형성하는 데 이용된 것 같다.⁶²⁾ 기브온 산당의 꿈 기사에서(왕상 3:4-15), 솔로몬의 왕권은 나단 신탁의 성취로 기술되어 있다. 열왕기상 11장에 등장하는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도 나단과 비슷한 예언을 선포한다. 아히야는 길가에서 만난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 예언한다(29-39 절). 아히야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임명하셨으며 그의 왕조를 위해 지원하실 것이라 약속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원과 도움은 “왕의 예언”(royal prophecy)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이다. 나단이 현직 왕에게 예언했다면, 아히야는 미래의 왕에게 “왕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다.⁶³⁾ 이처럼 나단이 다윗에게 선포한 “왕의 예언”은 후대의 왕들이 왕권의 합법성과 권위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 때 인용된 듯하다.⁶⁴⁾

5. 맺음말

신앗시리아 예언 문서에서, 예언자들은 왕과 그의 왕권에 대한 지속

61) Michael Avioz, *Nathan's Oracle (2 Samuel 7) and Its Interpreters* (Bern: Peter Lang, 2005), 72.

62) 이에 대해서는 Tryggve N. D. Mettinger, “Cui Bono? The Prophecy of Nathan (2 Sam 7) as a Piece of Political Rhetoric,” *SEA* 70 (2005), 207-210을 참조하라.

63) 참조하라, Helga Weippert, “Die Ätiologie des Nordreiches und seines Königshauses (I Reg 11 29-40),” *ZAW* 95 (1983), 344-347.

64) 스타벅(S. Starbuck)은 제왕 시편들은 야훼와의 계약을 입증하기 위해 예전부터 전승되어 오던 “왕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도 신앗시리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왕의 예언”이 보관되어 전수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S. R. A. Starbuck, *Court Oracles in the Psalms: The So-Called Royal Psalms in Their Ancient Near Eastern Context* (Atlanta: SBL, 1999), 127-142. 보넷과 메를로도 예언자들이 야훼 신앙을 고취하기 위해 그동안 전승되어 오던 “왕의 예언”을 이용했으리라 주장한다. Corinne Bonnet and Paolo Merlo, “Royal Prophecy in the Old Testament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Methodological Problems and Examples,” *SEL* 19 (2002), 77-86.

적인 지지자들로 묘사되고 있다. 예언자들은 왕이나 왕의 가족들에게 신적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로 기술되어 있다. 다른 전문 신탁 문서와 마찬가지로 예언의 메시지는 나중에 사용될 목적으로 궁중 서고에 수집되어 보관되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독서하기 위해 보관되었다. 예언은 일회적으로 선포된 것이 아니라 왕에게 지속적으로 신의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 거듭 반복되었다. 예언은 왕정의 이념 구현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었다. 위기의 순간에 예언자들은 신의 구원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왕을 격려했다.

신앗시리아 문서에 기록된 예언자들은 지위상으로 다른 전문 신탁가들보다는 하위에 위치하였다. 그들은 정치 엘리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에게 직접 예언을 선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선포한 예언의 내용은 다른 전문 신탁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비록 전문 신탁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때로, 예언은 다른 전문 신탁의 대안으로서 받아들여졌다. 전문 신탁이 왕 개인을 위해 베풀어졌다면, 예언은 그 목표가 왕이라 하더라도 먼저 대중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은 예언을 여론의 반영으로 간주해 자신의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데 참조했으리라 생각된다. 이처럼 간접 신탁이나 천문 신탁과 같은 전문 신탁처럼 예언은 왕이 국정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주요어>

예언, 마후, 라기무, 신앗시리아, 왕, 에살하돈, 앓수르바니팔, 나단

<Key Words>

Prophecy, Mahhu, Raggimu, Neo-Assyria, King, Esarhaddon, Ashurbanipal, Nathan

참고문헌

- 김문식, 『정조의 제왕학』, 서울: 태학사, 2007.
- 김유기, “성서 히브리어 <나비>의 어원,” 「장신논단」 29 (2007), 41-74.
- 노세영, 박종수, 『고대 근동의 역사와 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로버트 R. 윌슨,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과 사회』, 최종진 역, 서울: 예찬사, 1991.
- 박종수, 『이스라엘 종교와 제사장 신탁-제비뽑기의 신비』, 서울: 한들, 1997.
- 안길환 편역, 『정관정요 제왕학』, 서울: 책만드는집, 2007.
- 윤동녕, “소셜미디어로서의 예언의 역할-마리 문서의 예언현상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41 (2011), 11-34.
- 이영미, “이스라엘 왕정과 예언: 전기예언서에 나타난 신명기 사가의 예언 신학,”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2 (2007), 5-31.
- Bonnet, Corinne and Paolo Merlo, “Royal Prophecy in the Old Testament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Methodological Problems and Examples,” *SEL* 19 (2002), 77-86.
- Bottéro, Jean, *Religion in Ancient Mesopotamia*, T. L. Fagan, tran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2001.
- Brown, David, *Mesopotamian Planetary Astronomy-Astrology*, Gronigen: Styx, 2000.
- De Jong, Matthijs, *Isaiah among the Ancient Near Eastern Prophets: A Comparative Study of the Earliest Stages of the Isaiah Tradition and the Neo-Assyrian Prophecies*, VTS 117, Leiden: Brill, 2007.
- Dion, Hyacinthe M., “The Patriarchal Traditions and the Literary Form of the Oracle of Salvation,” *CBQ* 29 (1967), 198-206.
- Fleming, D. E. “The Etymological Origins of the Hebrew *nābî*: The One Who Invokes God,” *CBQ* 55 (1993), 217-224.
- Hoffner, H. A. Jr., “Ancient Views of Prophecy and Fulfillment: Mesopotamia and Asia Minor,” *JETS* 30 (1987), 257-265.
- Huffman, Herbert B. “The Origins of Prophecy,” F. M. Cross, et al., eds., *Magnalia Dei. The Mighty Acts of Gods: Essays on the Bible and Archaeology*

- in Memory of G. Ernest Wright*, Garden City: Doubleday, 1976, 171-186.
- Huffmon, Herbert B., “A Company of Prophets: Mari, Assyria, Israel,” Martti Nissinen, ed., *Prophecy in Its Ancient Near Eastern Context: Mesopotamian, Biblical, and Arabian Perspective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0, 47-70.
- Huffmon, Herbert B., “Prophecy in the Ancient Near East,” Keith Crim, ed.,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Supplementary Volume*, Nashville: Abingdon, 1976, 697-700.
- Huffmon, Herbert B., “Prophecy, Ancient Near Eastern Prophecy,” David Noel Freedman, ed., *Anchor Bible Dictionary* 5, New York: Doubleday, 1992, 477-482.
- Huhnengard, John, “On the Etymology and Meaning of Hebrew *nābi’*,” *EI* 26 (1999), 88-93.
- Ishida, Tomoo, *The Royal Dynasties in Ancient Israel: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Royal-Dynastic Ideology*, BZAW 142, Berlin: Walter de Gruyter, 1997.
- Jeyes, Ulla, *Old Babylonian Extispicy: Omen Texts in the British Museum*, Istanbul: Nederlands Historisch-Archaeologisch Instituut, 1989.
- Lemaire, André, “Prophètes et rois dans les inscriptions ouest-sémitiques (IXe-VIe siècle av. J. C.),” A. Lemaire, ed., *Prophètes et rois: Bible et Proche-Orient*, Paris: Cerf, 2001, 85-115.
- Lenzi, Alan, *Secrecy and the Gods: Secret Knowledge in Ancient Mesopotamian and Biblical Israel*, SAAS 19, Helsinki: The Neo-Assyrian Text Corpus Project, 2008.
- Malamat, Abraham, “A Mari Prophecy and Nathan’s Dynastic Oracle,” J. A. Emerton, ed., *Prophecy: Essays Presented to Georg Fohrer on His Sixty-Fifth Birthday 6 September 1980*, BZAW 150, Berlin: Walter de Gruyter, 1980, 69-82.
- Mattila, Raija, *The King’s Magnates: A Study of the Highest Officials of the Neo-Assyrian Empire*, SAAS 11, Helsinki: Helsinki University Press,

2000.

- Mettinger, Tryggve N. D., "Cui Bono? The Prophecy of Nathan (2 Sam 7) as a Piece of Political Rhetoric," *SEA* 70 (2005), 193-214.
- Morgan, Catherine, *Athletes and Oracles: The Transformation of Olympia and Delphi in the Eighth Century B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Nissinen, Martti, "Das kritische Potential in der altorientalischen Prophetie," M. Köckert and M. Nissinen, eds., *Propheten in Mari, Assyrien und Israe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3, 1-32.
- Nissinen, Martti, "Falsche Prophetie in neuassyrischer und deuteronomistischer Darstellung," T. Veijola, ed., *Das Deuteronomium und seine Querbeziehungen*, Helsinki: Finnische Exegetische Gesellschaft, 1996, 172-195.
- Nissinen, Martti, "Fear Not: A Study on an Ancient Near Eastern Phrase," Marvin A. Sweeney and Ehud Ben Zvi, eds., *Changing Face of Form Criticism for the Twenty-First Century*, Grand Rapids: Eerdmans, 2003, 122-161.
- Nissinen, Martti, "Spoken, Written, Quoted, and Invented: Orality and Writteness in Ancient Near Eastern Prophecy," E. B. Zvi and M. H. Floyd, eds., *Writings and Speech in Israelite and Ancient Near Eastern Prophecy*,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0, 235-271.
- Nissinen, Martti, "What is Prophecy? An Ancient Near Eastern Perspective," J. Kaltner and L. Stulman, eds., *Inspired Speech: Prophecy in the Ancient Near East. Essays in Honour of Herbert B. Huffmon*, JSOTS 378, 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04, 17-37.
- Nissinen, Martti, *Prophets and Prophecy in the Ancient Near East*,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3.
- Nissinen, Martti, *References to Prophecy in Neo-Assyrian Sources*, SSAS 7, Helsinki: Neo-Assyrian Text Corpus Project, 1998.
- Parpola, Simo, "The Assyrian Cabinet," M. Dietrich and O. Loretz, eds., *Vom Alten Orient zum Alten Testament: Festschrift für Wolfram Freiherrn von*

- Soden zum 85. Geburtstag am 19. Juni 1993*, AOAT 240, Neukirchen-Vluyn: Neukirchner Verlag, 1995, 379-401.
- Parpola, Simo, *Assyrian Prophecies*, SAA 9, Helsinki: Helsinki University Press, 1997.
- Parpola, Simo, *Letters from Assyrian and Babylonian Scholars*, SAA 10, Helsinki: Helsinki University Press, 1993.
- Pongratz-Leisten, Beate, *Herrschaftswissen in Mesopotamien: Formen der Kommunikation zwischen Gott und König in 2. und 1. Jahrtausend v. Chr.*, SAAS 10, Helsinki: The Neo-Assyrian Text Corpus Project, 1999.
- Starbuck, S. R. A., *Court Oracles in the Psalms: The So-Called Royal Psalms in Their Ancient Near Eastern Context*,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1999.
- Van de Mieroop, Marc, *History of the Ancient Near East, ca. 3000-323 BCE*, Oxford: Blackwell, 2005.
- Van der Toorn, Karel, “Mesopotamian Prophecy between Immanence and Transcendence: A Comparison of Old Babylonian and Neo-Assyrian Prophecy,” *Martti Nissinen, Prophecy in Its Ancient Near Eastern Context: Mesopotamian, Biblical, and Arabian Perspectives*, SBLSS 13,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0, 71-87.
- Weippert, Helga, “Die Ätiologie des Nordreiches und seines Königshauses (I Reg 11 29-40),” *ZAW* 95 (1983), 344-375.
- Weippert, Manfred, “‘Heliger Krieg’ in Israel und Assyrien: Kritische Anmerkungen zu Gerhard von Rads Konzept des ‘Heiligen Krieges im alten Israel’,” *ZAW* 84 (1972), 460-493.
- Weippert, Manfred, “‘Ich bin Jahwe’--‘Ich bin Ištar von Arbela’: Deuterocesaja im Lichte der neuassyrischen Prophetie,” B. Huwlyer, et al., eds., *Prophetie und Psalmen: Festschrift für Klaus Seybold zum 65. Geburtstag*, AOAT 280, Münster: Ugarit-Verlag, 2001, 31-59.
- Weippert, Manfred, “‘König fürchte dich nicht!’: Assyrische Prophetie im 7. Jahrhundert v. Chr.,” *Or* 71 (2002), 1-54.
- Weippert, Manfred, “Aspekte israelitischer Prophetie im Lichte verwandter

Erscheinungen des Alten Orients,” G. Mauer and U. Magen, eds., *Ad bene et fideliter seminandum: Festgabe für Karlbeinz Deller zum 21. Februar 1987*, AOAT 220,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88, 287-319.

Weippert, Manfred, “Assyrische Prophetien der Zeit Asarhaddons und Assurbanipals,” F. M. Fales, ed., *Assyrian Royal Inscriptions: New Horizons in Literary, Ideology, and Historical Analysis*, Roma: Instituto Per L’Oriente, 1981, 71-115.

Weippert, Manfred, “Königsprophetie und Königsideologie in Juda: Zur ‘Nathansweissagung’ 2 Sa 7, 4-17,” T. Podella and P. Riede, eds., *Spuren eines Weges: Freundesgabe für Bernd Janowski zum fünfzigsten Geburtstag am 30. April 1993*, Wissenschaftlich-Theologisches Seminar: Universität Heidelberg, 1993, 291-302.

Weippert, Manfred, “Prophetie im Alten Orient,” Manfred Görg and Bernhard Lang, eds., *Neues Bibel-Lexikon* 3, Zürich: Benziger, 1991-2001, 196-200.

<초록>

신앗시리아의 왕을 향한 예언 연구

윤동녕

(대전신학대학교 강사)

신앗시리아의 예언 문서에 등장하는 라기무와 마후 같은 예언자들은 왕에게 긍정적인 예언을 선포했다. 비록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간접 신탁가나 천문 신탁가보다는 낮았지만 그들의 예언의 내용과 주제에 있어서는 전문 신탁과 큰 차이가 없었다. 예언의 주목표는 왕의 복지와 제국의 평안이었다. 하지만 예언자들은 왕에게 직접 예언을 선포하지 않았다. 신전이나 성문과 같은 공개 장소에서 선포된 예언을 관료나 전문 신탁가들이 수집해 왕에게 서간문 형태로 보고했다. 예언자들은 통상적으로 왕권의 안정에 대한 신적 약속, 왕의 안정, 국내, 외의 대적들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왕조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약속을 선포했다. 양식 비평학적 관점에서 볼 때 왕의 예언은 몇 가지 공통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예언을 선포하는 신의 자기소개, 역사적 회고, 격려의 문구, 그리고 신적 보호와 동행에 대한 약속이 그것이다. 왕의 예언은 다른 전문 신탁과 마찬가지로 신앗시리아 궁정 도서관에 보관되어 왕이 국정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통치 지식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신앗시리아의 왕의 예언은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하는 나단의 신탁과 유사점이 있다. 다윗에게 선포된 신적 약속은 왕위 계승의 합법성이나 왕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후대에 인용되었을 것이다.

<Abstract>

Prophetic Oracles Proclaimed to the Neo-Assyrian Kings

Dr. Dong-Young Yoon
(Daejeon Theological University)

The prophets “raggimu” and “mahhû” in Neo-Assyrian prophetic corpus are described to have proclaimed positive prophecies to the king. Their social status were relatively lower than professional diviners such as astrologers and haruspices, however, in contents and topics the distinction between prophecy and divination was not that clear. Prophets usually pronounced the well-being of the king and the stability of the empire. Though the main target of these prophecies was the king, the prophets did not announce the divine message directly in the presence of the king. Royal officials and diviners who had access to the king collected and reported prophetic messages that are proclaimed in the temple or at the city gates. Prophets delivered divine promise to guarantee dynastic continuation, the stability of the kingship, the safety of the king, and the protection against inner or outer enemies. From the form critical perspective, the royal prophecies share some common elements such as divine self-introduction, historical retrospection, encouragement, and promise of divine protection and accompaniment. The prophecies like other professional and academic divinatory oracles were collected and stored in the royal library and then were reused as Herrschaftswissen to maintain royal administration. In this

regard, Neo-Assyrian royal prophecy share some commonalities with Nathan's oracle in 2 Samuel 7. As Neo-Assyrian prophecies were recycled, the divine promise heralded to David would have been referred by his successors to be authorized of their throne and to maintain security and stability of the kingdom.

